

군산시,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 발표... 군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군산시는 갑작스런 비상사국과 내수 침체 상황으로 소비위축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손을 잡았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을 26일 함께 발표했다. 먼저 군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1월 초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5개 사업에 240억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1,000억원 확대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10%, 월 최대 2만원 적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임대료 30만원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한도 확대 30만원→50만원 △소상공인 용자지원 규모 확대 125억원→250억원 및 용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 3%→5%이다.

먼저 시는 소비 촉진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캐시백 시행 사업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액 3,000억원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 4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류는 디지털 취약계층(65세 이상 연령제한)과 전통시장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년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군산시는 2018년 소비 촉진 효

과가 있었던 캐시백 적립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 적립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월 최대 2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 캐시백 사업은 2019년 세무조사 결과 가맹점 매출의 32%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최근 비상사국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만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1월 시스템을 정비하여 2월경 군산시권 활성화재단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확대 지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 용자 지원사업과 용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소상공인 용자지원 대출 규모 125억원을 250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자금 이자 지원율을 3%에서 5%로 확대 지원한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1월 협약을 통해 저신용자(3~7등급) 우선 용자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시는 물가안정 관리 및 민생경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군산 경제에 활력이 증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황 종료 시까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물가 상시 모니터링, 군산시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가격)할 계획이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확대(45개소→53개 이상),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골목형 상점이 추가 지정도 준비 중이다.

시는 각종 발주 공사 등 투자 부분 집행률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안도 세웠다. 또한 지역제동향 및 추가 사업발굴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활력과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군산시는 시민들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투자유치 제일 잘했다'

전북자치도 주관, 투자유치 우수기관 평가서 '최우수' 선정 16개 기업 5877억원 규모 투자협약... 700여명 일자리 창출

익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투자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평가 첫해인 2019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우수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재선정돼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신규고용 △투자규모 △투자유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시는 16개 기업과 5,87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우화인켐, 제이비케이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 신성장 기술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에 집중해 지역의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익산에 본사를 둔 동우화인켐은 반도체 소재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단지 9만3,000㎡ 부지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제이비케이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레드진 등 바이오 유망 기업은 지역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건식무연, 용공식품, 넥스트팜,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투자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더담우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 등에도 힘쓰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산업 기업을 집약화해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입주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에 힘쓰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익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민생 안정 최우선으로' ... 익산시, 신속한 재정 집행 '온 힘'

신속집행 추진단 운영... 민생 분야 사업 등 집행 현황 점검 4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1340억원 설정·초과 집행 집중

익산시가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익산시는 2024년 4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을 1,340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초과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예산 신속집행을 85%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집행 현황을 일일 단위로 집계하는 등 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있다.시는 강영석 부시장은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된 공공사업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정부 신속집행 목표에 맞춰 연초부터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부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말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신속집행 목표액을 초과달성해 재정집행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으며 포상금 약 4억원을 받아 현안 사업에 투입한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공약사업 이행률 78% 달성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정기회의 개최... 이행현황 점검·대책 논의

군산시는 지난 24일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열고, 공약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59개 공약사업 중 현재 3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 4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공약사업 전체 이행률은 78%로, 민선 8기 후반기 동안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화생 플랫폼 '공부의 명수' △중고등학교 생 시대버스 무상요금 도입 △새로운 경제시대, 구독경제 활성화 △배달의 명수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고군산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 구축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조성 등이 있으며, 이는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들이다.

특히, 새만금미래성장센터, 상상도시관 건립, 청년임대주택 100세대 조성 등 추진률 80% 미만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임기 내 완료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6일 개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새해 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

기로 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70회 임시회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라며 "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대안을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